

◇조기 영아에서 전폐정맥연결이상의 외과적 교정

성 시찬, 방정희, 전희재, 조광조, 우중수, 이형두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전폐정맥연결이상은 출생 초기부터 심한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보이는 비교적 드문 선천성 심장기형으로 과거에는 수술성적이 좋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교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조기 영아기에 외과적으로 교정된 전폐정맥연결이상 환아들의 조기 및 중기 성적을 분석하여 향후 수술요법에 도움을 얻고자 시행되었다.

방법 : 1993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본 교실에서 외과적으로 교정술을 시행받은 전폐정맥연결이상 환아들중 조기 영아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나이는 생후 4일에서 3.5개월(중심나이 생후 22일)이었고 이 중 신생아[생후 30일 이내 혹은 제태기간 41개월 이내]는 모두 10례였다. 남아가 8명, 여아가 7명이었으며, 체중은 1.75kg에서 4.9kg[평균체중 3.54kg]이었다. 심기형을 형태별로 보면 심장상부형이 11례, 심장형이 3례, 심장하부형이 1례였다. 6례[40%]에서 폐정맥환류의 협착이 있었다. 수술방법은 심장형 2례를 제외하고는 완전순환 정지법을 사용하였고 심장상부형과 심장하부형은 심장의 우측에서 좌심방 뒷쪽으로 접근하여 공통폐정맥과 좌심방을 문합하였다. 추적관찰은 환아의 활동상태, 단순흉부촬영상 폐혈관음영의 증가유무, 심초음파검사를 이용하였다.

결과 : 1명의 환아가 술후 17일째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수술사망율은 6.7%였다. 수술 생존자 14명 모두 추적조사가 가능하였으며 평균 추적기간은 25.8 ± 20.4 개월[0.5개월에서 67개월]이었다. 추적기간동안 모두 2명의 환아에서 폐정맥 혹은 문합부협착으로 각각 술후 5개월, 10개월에 재수술이 시행되었고 이 중 1명은 재수술후 폐정맥협착이 또 재발하여 재수술 3개월후에 폐동맥고혈압으로 사망하였다. 나머지 1명은 좌폐동맥폐쇄와 함께 폐동맥고혈압이 있는 상태로 생존하고 있다. 2명의 환아가 만기 사망하였는데 나머지 1명은 심장형 전폐정맥연결이상 환아로 술후 폐정맥협착이나 폐동맥고혈압이 없었으나 수술 3년후 집에서 급사하였다. 만기사망 및 재수술 환아 3명을 제외한 11명[78.6%]의 환아는 심초음파검사상 폐정맥환류의 협착이나 폐동맥고혈압의 증거없이 모두 NYHA class I으로 잘 지내고 있다.

결론 : 조기 영아에서의 전폐정맥연결이상은 비교적 낮은 수술사망율로 교정될 수 있었으나 술후 폐정맥 혹은 문합부협착이 2례[14.3%]에서 발생하였고 재수술의 결과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술후 폐정맥환류에 협착이 없었던 환아들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